아시아여성연구 제61권 1호
The Journal of Asian Women
Vol.61-1 (pp.127-174)
http://dx.doi.org/10.14431/jaw.2022.4.61.1.127

‘생성’으로서의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

김 영 순** · 최 수 안***

논문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을 ‘생성’으로서의 자조모임으로 개념화하고, 연구참여자의 생활세계를 둘러싼 개인적·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미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미스와 플라워스와 라르킨(Smith, Flowers, & Larkin, 2009)이 제안한 해석 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을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자료수집은 인천시 소재 A 가족센터 자조모임에 활발하고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경험의 패턴으로 ‘결핍의 기억들’, ‘생성의 선을 그리다’, ‘넘나드는 공간으로’ 세 가지가 도출되었으며, 자조모임 참여의 의미로 ‘차이의 생성을 통한 타자-되기’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과거 기억은 자조모임을 통해 상호연결을 이루면서 차이를 생성하는 선으로 변이하였다. 스스로를 위해 참여했던 자조모임이 또 다른 결핍의 기억을 가진 누군가에 대한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지며 차이 생성의 과정은 반복되었고, 다문화 생활세계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해 나갔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이 사회·경제적 참여 측면으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 둘째, 자조모임이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다문화 관련 지원기관은 자조모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야 한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생성, 들뢰즈와 가타리, 해석 현상학적 분석

---

* 제2회 전국 대학 다문화학과 연합세미나(2022.4.29.)에서 발표하였음.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kimysoon@inha.ac.kr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hsu.choi@gmail.com

I. 서론

생활세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테두리 안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동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당연시되는 세계(The world taken for granted)'이다(Burger, 1971, pp. 1-5). 그러나 다문화 생활세계는 당연시되는 세계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다원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혼성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김영순 외, 2019, 62-70). 따라서 다문화 생활세계에서의 낯선 타자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에 변화를 야기하며, 기존의 질서에 대한 자기 기만적 태도의 각성을 요구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과 같은 공동체는 당연시되는 세계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상호연결을 시도하며, 다문화 생활세계로의 변화를 추동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은 가정, 집단 등 다양한 층위의 생활세계와의 상호연결을 통해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진 지식과 태도에 대한 각성을 요구한다(김광기, 2001, 398-408).

한국 사회는 세계적 차원의 '이주의 여성화' 현상 속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통합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의 간의 관계 맺음을 통해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공존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영순 외, 2019, 154-163). 그러나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실시된 결혼이주여성 대상 사회통합 정책은 일방적인 동화정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김경옥, 2010; 김은재, 2016; 김이선, 2010; 김현미, 2008). 일례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해 실시된 '자조모임'에 대한 정책도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박경애 외, 2012; 임선우·윤황, 2017).

유목적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은 주체와 주체와의 끊임없는 상호연결을 통해 주체성을 구성해나간다. 또한 자신이 지닌 욕망을 토대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새로운 연결을 생성하고, 유목적 주체들이 마주침을 통해 생활세계 속에 혼합된다(Braidotti, 1994, pp. 21-68). 즉 다문화 생활세계에서 유

목적 주체인 결혼이주여성의 출현은 단절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여기'에서 경계를 넘나들며 구성되는 것이다. 경계를 넘나들고 구성된다는 것은 이질적인 것을 향해서, 즉 자신과는 다른 모든 차이를 향해서 개방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외부와의 결연으로 나아간다(Deleuze & Guattari, 1968/2001). 여기서 의미하는 결연은 동질성, 익숙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만남과 접속에서 차이를 긍정하고, 상생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진경, 2018b, 709-731). 결혼이주여성들이 생성하고, 결연 과정에 있는 자조모임은 다양한 관계 맺기를 통해서 공존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공간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은 이러한 복합적인 네트워크로서의 존재 양상은 다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단순화시켜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최병두 외, 2017, 219).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을 '지금-여기'에서 상호연결되고 있는 생성의 공간으로 해석하고,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의미 생성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의 의미 생성 과정은 사회, 문화적 맥락과 얽혀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각각의 경험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자조모임이 어떠한 상호연결을 시도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김영천, 2013). 이를 위해 해석 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을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IPA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생활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행위하는 바에 대하여 미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일반 법칙의 정립이 아닌, 상세한 분석과 통찰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지향한다(Smith et al., 2009).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생성으로서의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에서의 역동적인 생성의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당연시되는 세계가 다문화 생활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상호연결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과 자조모임(Self-help Groups)

사회적 집단으로서 자조모임은 공통의 문제를 공유하고, 상호 간의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자발적 조직이다(Borkman, 1976, p. 445). 자조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삶에 대한 대처 전략을 배워나간다(차현미, 2003; Wituk et al., 2000). 자조모임의 이러한 상호 원조의 과정은 자조모임 구성원들이 각기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임선우·윤황, 2017, 655). 다시 말해 개별적이면서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성된 자조모임은 집합적 행동으로 조직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적인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조도현·조대엽, 2008; Toch, 2013).

1935년 알코올 중독자 자조모임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 이후, 만성질환자, 장애인, 여성 등에 이르기까지 자조모임의 성격과 영역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다(이경준, 2006; Khasnabis et al., 2010).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심리적 외로움, 언어적 어려움과 같이 개인적 부적응에 기초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들의 몰이해, 더 나아가 한국 사회로부터 '정상 다문화가족'(최연숙, 2021, 11)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경험한다(김경옥, 2010; 이은아, 2012; 최연숙, 2021). 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 참여는 문제 생활에 대한 대처 및 해결, 정보·지식·경험 등의 교류, 소외와 고립에 대한 극복과 상호협력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공통성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촉매가 된다(박경애 외, 2012).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제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2010-2012)에서 다문화가족간 자조모임 구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 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2017-2022)에서도 자조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209개의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460여개의 자조모임이 운영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66).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는 크게 심리 및 정서적 연대, 발전 욕구의 실현, 정치적 실천으로 다루어져 왔다. 먼저 심리 및 정서적 연대는 자조모임의 기초가 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공동체는 이방인들의 피난처이자 타지에 만드는 상상의 고향으로 현실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심리적 위안을 제공한다(김영경, 2015; 김영순 외, 2014; 김정선, 2009; 임선우, 2020; 최미경, 2021). 김영경(2015)은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뢰와 관계의 사회자본은 정치적 영역의 사회자본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성호(2019)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공동체에서 만족감과 보람, 자존감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으나,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정치권리 행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정보의 부족, 정치에 대한 이해 및 결혼이주여성들로만 운영되는 공동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둘째, 자조모임은 또한 발전 욕구를 실현하는 장이 된다(임선우·윤황, 2017; 이춘양 외, 2020; 정성미, 2010; 최미경, 2021). 결혼이주여성들은 통번역 자조모임(임선우·윤황, 2017)이나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조모임(정성미, 2010, 67) 등의 자조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조모임을 통해 취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최미경, 2021). 이춘양 외(2020)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예술 자조모임 활동이 심리 및 정서적 연대뿐만 아니라, 자기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셋째, 자조모임의 정치적 실천의 차원에서 '정체성 정치'(정성미, 2010, 113)를 구현하는 장으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불평등하고 열등한 지위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공동체'라는 경계를 만들고 의지하며, 다른 어딘가(elsewhere)에 속한 것으로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김영

순 외, 2014; 김정선, 2009; 임선우, 2020; 정성미, 2010). 그러나 김영옥(2010)은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를 다문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공간이자, 기존 권력 관계와의 협상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새로운 윤리가 요구되는 인정의 공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정치적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이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외부와의 상호소통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로부터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은 유입국의 생활세계가 아닌, 별도의 제 3공간(임선우, 2020, 200)으로서의 공동체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간은 서로 결합하고 뒤섞이고, 상호 간 혼합하면서 공존해나간다는 점에서(김은주, 2016, 9-11), 보다 상호관계적이고 연결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자조모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은 심리 및 정서적 연대를 바탕으로 정치적 실천을 지향하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치적 실천의 모습은 투표(김성호, 2019)를 하거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김성호, 2019; 김영경, 2015; 최미경, 2021), 당연시되는 생활세계로부터의 인정(김영순 외, 2014; 김정선, 2009; 임선우, 2020; 정성미, 2010)을 바탕으로 그려진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것들은 정치적 실천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차이를 생성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이진경, 2018a, 123-171). 셋째, 다문화 관련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조모임[1]에 관한 연구는 이춘양 외(2020)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

1) 자조모임은 전통적으로 전문가나 제 3자가 개입하지 않고, 모임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개별적 자조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사회적 자조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자조모임에서 전문가가 개입되지 않는 형태를 더 중요하게 여겼지만, 최근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사회적 자조의 형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Adamsen, & Rasmussen, 2001, p. 910). 이는 지나친 자기 해결만을 강조하는 것은 활동상의 한계를 가져옴과 동시에 오히려 모임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될 수 있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이경준, 2006, 127).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조모임은 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아닌 연결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체성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이숙진·김안나,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을 폐쇄적 공간이 아닌 혼종적 공간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 관련 지원센터 중 하나인 인천시 A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욕망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과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자조모임의 사회적 확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생성'으로서의 자조모임

인간은 '세계 개방적 존재'로 항상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기보다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 초월하려고 하는, '중심을 이탈하는' 그런 존재이다(김광기, 2001, 389). 다시 말해 인간은 지금의 나를 규정하고 있는 울타리 바깥의 삶을 욕망하며,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배치'를 바꾸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근원이라 할 수 있다(이정우, 2008, 165-166).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 Guattari, 1983)는 "욕망과 사회만 있을 뿐 그 다른 것은 없다(there is only desire and the social, and nothing else)"라고 하면서, 존재가 지니고 있는 욕망으로 사회의 역동을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욕망을 가진 인간은 사회 안에서 자신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욕망은 사회적인 것이며, 존재를 재확인하는 지속적인 시도이다(O'Shea, 2002, pp. 925-940). 또한 욕망은 특정 현실화에 대한 조건을 생성하고 새로운 연결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생산적이고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Bignall, 2008, pp. 127-147).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초국적 이주를 감행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생성하고, 새로운 연결을 도모하며 배치를 변화시키는 사회적인 존

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전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확산은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증폭시켰다.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은 국제결혼이라는 새로운 결혼제도를 통해 가부장적 성별 분업을 유지하고, 사회 재생산 및 돌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김은재, 2016; 황정미, 2009). 또한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국민의 배우자'이자 '국민의 어머니'로만 간주되며, 전통적인 여성과 전통적인 어머니로만 형상화되고(이은아, 2012; 최연숙, 2021), 이주국의 가족 규범을 비롯한 사회규범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타자로 본질화한다(김순남, 2014; 김이선, 2010). 이러한 인식이 지배하는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지닌 차이와 생성의 힘은 무시된 채, 오로지 결핍으로만 다루어진다(이진경, 2018b, 23-210). 즉 이들이 지닌 욕망은 당연시되는 세계에 편입하고자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반사작용으로만 여겨질 뿐이다. 그러나 들뢰즈와 가타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욕망은 무언가를 채워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생산하는 힘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생성하며, 삶을 재배치시키고자 하는 유목적 주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는 본국 가족에 대한 생계 부양이나, 중산층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등의 근대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황정미, 2009; King & Christou, 2011). 즉 결혼이주여성은 세계 개방적 존재로서 중심을 이탈하여 자신의 삶을 재배치함으로써 욕망을 실천하고,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모험가'(황정미, 2009, 22)이자 유목적 주체이다. 유목적 주체는 하나의 주체가 다른 주체, 또는 주체들을 만나 주체성의 변이를 이루면서 새로운 주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주체로, 주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지명훈, 2021, 353-355).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은 존재의 방식을 창조해 나가는 생성의 과정이며, 결연(alliance)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Deleuze & Guattari, 1968/2001).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획일적으로 정의 내리고자 하는 배

치에서 벗어나 생성의 선을 그리면서 결연의 공간으로 나아간다. 이 공간은 리좀적 상호연결을 바탕으로 모든 방향으로의 변이가 가능한 존재들이 저마다의 되기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김은주, 2014, 98-101). 리좀이란 확고한 뿌리나 근거를 갖고 있는 체계, 그러한 체계라고 믿고 있었던 사고에서 벗어나 존재의 생성, 변이와 창조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이진경, 2018a, 67-120). 따라서 리좀적 상호연결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을 정의하는 한국 사회의 틀에 매몰되지 않고,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목적 주체들의 마주침이 연결되고 혼합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은 제 3공간으로 구분되는 다른 어딘가(elsewhere)라기 보다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살고 있는 바로 '지금-여기(erehwon)'[2](김은주, 2016, 18)에서 존재하며, 유목적 주체들이 지닌 생성의 힘이 유입되고 상호연결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공동체라 정의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성으로서의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하여 해석 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을 실시하였다. IPA는 보편성을 요구하는 양적 연구의 패러다임 속에서 질적 연구의 핵심인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데

2) 'Erewhon'은 사무엘 버틀러가 'no where'의 음절 순서를 뒤바꾸어 만든 조어로, <어디에도 없음>이자 <지금-여기>를 의미한다. 들뢰즈가 의미하는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위치를 바꾸고 위장하며 언제나 새롭게 재창조되는 '지금-여기'"를 강조하는데, 'Erewhon'은 이러한 공간적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다(김은주, 2016, 18).

집중한다(이광석, 2013). 즉 경험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과는 달리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특정한 경험에 집중하고, 이들이 내적·외적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고 이해하고 해석되는지 관심을 두고 있다(Smith & Osborn, 2003). IPA는 그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상학과 해석학에 기반을 두고 개별적 경험을 중시하는 만큼 개성기술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이광석, 2013, 132). 연구참여자의 생활세계에서의 경험을 상세하게 점검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이며, 연구참여자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연구자가 의미화하고 해석한다는 점에서 해석학적이다. 또한 현상학과 해석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법칙을 찾고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연구참여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개성기술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의미 생성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자조모임이 어떠한 생성을 이루어나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 한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두는 것은 미시적 세계의 탐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경험 이상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김영천, 2013; Cole & Knowles, 2001). 따라서 현상학, 해석학, 개성기술에 토대를 두고 있는 IPA 연구방법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와 자조모임에서의 경험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탐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연구목적에 적합한 자료수집을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스미스 외(Smith, Flowers, & Larkin, 2009)가 제안한 자료분석 절차에 따라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1인, 교육학 박사 1인,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과정생 4인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자조모임에 관한 선행연구를 리뷰하고 연구 주제 및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작성하였다. 각 면담이 종료될 때마다 면담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하여 후속 면담에서 적용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토

의 과정을 거치며, 연구자의 해석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 관련 협의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0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2. 연구참여자

IPA는 살아있는 경험이나 현상을 점검함으로써 얻어지는 개인의 실체, 구성, 통찰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의도한 연구목적에 맞게 '기준 표집 방법'을 일차적으로 따른다. 또한 특정 개인의 경험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소수의 연구참여자, 소규모 표본을 원칙으로 한다(Smith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 가족센터로부터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 10명을 추천받아 1차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참여자 3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 기준은 ①한국어로 면담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 ②한국에 거주한 지 5년 이상된 자, ③자조모임에 참여한지 3~5년인 자, ④A 가족센터 자조모임 및 외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한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3)]

구분	출신 국적	현재 국적	이주연도	자조모임 참여기간	참여 자조모임
연구참여자 A	베트남	한국, 베트남	2015년	5년	3개
연구참여자 B	중국(한족)	중국	2009년	5년	3개
연구참여자 C	베트남	한국, 베트남	2013년	4년	2개(1개)

3)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연구 참여 동의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민감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였다.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는 총 3명으로 중국(한족) 출신 1명, 베트남 출신 2명이다. 연구참여자 A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통번역 자조모임, 검정고시 자조모임, 공동육아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통번역 자조모임은 2017년부터 참여하였으며, 검정고시 자조모임은 2019년, 공동육아 자조모임은 2020년부터 참여하였다. 통번역 자조모임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프리랜서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B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통번역 자조모임, 수세미 자조모임, 공예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와 마찬가지로 통번역 자조모임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두 자조모임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비대면으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대면 만남은 해본 적이 없다. 현재 다문화 이해강사, 프리랜서 통번역사로도 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C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합창단 자조모임에 참여하였으며, 직장에 취직하면서 자녀와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자조모임을 그만두었다. 이후 2019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뮤지컬 자조모임이 생겨서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직장에서 베트남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의사 철회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였다.[4] 본 연구의 자료

4)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방법 및 절차, 불편감·위험 및 이익 가능성, 연구참여와 중지,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에 관해 안내하였다. 특히 수집된 연구자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인간 대상 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됨을 안내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수집은 이메일을 활용한 서면 면담과 심층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과정의 개요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자료수집 과정 개요

구분	서면 면담	1차 면담		2차 면담		3차 면담	
		일시	장소	일시	장소	일시	장소
연구참여자 A	2021. 12.26.	2021. 12.29.	가족 센터	2022. 2.3.	비대면	-	-
연구참여자 B	2021. 12.26.	2022. 1.10.	커피숍	2022. 1.27.	비대면	-	-
연구참여자 C	2021. 12.26.	2021. 12.29.	가족 센터	2022. 2.9.	가족 센터	2022. 2.23.	유선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서면 면담과 2~3회의 심층 면담이 실시되었다. 서면 면담은 면담 전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와 한국으로의 이주 계기, 참여하고 있는 자조모임에 대한 설명, 자조모임의 참여 계기, 자조모임 참여 후 삶의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심층 면담은 <표 3>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서면 면담의 내용을 좀 더 심화하여 질문하고, 이에 더해 가족관계, 자조모임 개선방안, 자조모임 이외의 활동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3〉 심층 면담 반구조화 질문지

범주	내용
기본정보	• 이주 전과 현재의 가족관계 • 한국으로의 이주동기 • 이주 전 직업/꿈
자조모임 참여 배경	• 자조모임 참여 전의 한국생활 경험 • 자조모임 참여 계기
자조모임 활동	• 자조모임의 활동 내용

	• 자조모임 모임 횟수 및 장소 • 자조모임 구성원들과의 관계 • 자조모임에서의 의사결정 방식 • 자조모임 활동에서 경험한 어려움
자조모임의 영향력	• 자조모임 참여에 대한 기대감 • 부모/배우자/자녀의 반응과 역할의 변화 • 자조모임 참여 이후의 개인적 성장
자조모임의 확장	• 자조모임에서의 가족센터의 역할 • 자조모임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 • 자조모임 발전을 위해 바라는 점

1~2차 면담은 각 회당 100~120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상황에서 자조모임이 운영되는 A 가족센터나 연구참여자 자택 근처의 커피숍, 비대면(zoom) 등으로 진행되었다. 3차 면담은 면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화로 약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서 중복된 이야기가 나오면 자료가 포화되었다고 판단하고 면담을 종료하였다. 모든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 및 녹화 후 연구현장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에 전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량은 A4 기준 약 140여매이다.

자료분석은 스미스 외(Smith et al., 2009)가 제시한 IPA 자료분석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전사록을 읽고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예비 주석 달기, 추상적 주제 정하기, 생성된 주제들 간의 연관성 찾고 군집화하기, 주제 목록 작성하고 다른 사례로 넘어가기, 각 사례에서 패턴 파악하기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절차를 통해 각각의 연구참여자들의 자조모임에서의 경험에 대한 주제를 파악하고, 경험의 패턴을 도출함으로써 그 의미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IPA에서 연구자는 연구하고 있는 현상에서의 '내부자 관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연구자가 분석 도구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연구참여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생활세계에 대하여, 연구자로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거친다(Smith & Osborn, 2003; Smith et al.,

2009). 해석학적 순환과정은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반복적인 시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순환적인 흐름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고, 연구참여자들의 생활세계는 연구자의 해석으로 재구성된다(Gadamer, 1972/2012). 연구자의 신념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해석학적 순환과정에서 연구자의 신념에 대한 성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신념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자 노트를 작성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마주한 연구자의 경험에 대해 기록하면서 연구자의 신념에 대하여 성찰하였다. 또한 전사록의 반복적인 검토와 연구팀의 확인을 통해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학적 순환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을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미시적인 경험의 세부적인 맥락에 집중하고, 연구참여자 각각의 사례에 따라 주제를 분류하였다. 이들의 각각의 경험 사례를 토대로 참여 의미를 도출하고, 경험의 패턴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도출된 각각의 주제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패턴은 '결핍의 기억들', '생성의 선을 그리다', '넘나드는 공간으로'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과거 기억은 자조모임을 통해 상호연결을 이루면서 차이를 생성하는 선으로 변이하였다. 스스로를 위해 참여했던 자조모임이 또 다른 결핍의 기억을 가진 누군가에 대한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지며 차이 생성의 과정은 반복되었고, 다문화 생활세계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성으로서의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에 대한

종합적 의미로 ‘차이의 생성을 통한 타자-되기로’ 정의하였다.

〈표 4〉 연구참여자별 경험주제

구분	하위주제 1(과거)	하위주제 2(현재)	하위주제 3(미래)
연구참여자 A	주변인으로의 전락	경험을 나누다	미래로의 공간으로
연구참여자 B	결혼 진정성에 대한 의심	다가가고 드러내다	열린 공간으로
연구참여자 C	외국인 엄마의 한계	참여하고 실천하다	소통하는 공간으로
	▽	▽	▽
경험의 패턴	결핍의 기억들	생성의 선을 그리다	넘나드는 공간으로
		▼	
종합적 의미	“차이의 생성을 통한 타자-되기로”		

연구 결과는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경험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제시하되, 연구참여자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동시에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이 지닌 유사성과 차이점을 조망할 수 있도록 본 장의 4절에서 생성으로서의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에 대한 종합적 의미를 기술하였다.

1. 결핍의 기억들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삶을 생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국인과 결혼했다.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이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자신의 삶을 생성해나가고자 했지만, 한국이라는 국가는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포섭을 시도하였고, 정형화된 틀 속에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주변인으로 전락하거나,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외국인 엄마라는 한계를 마주한다. 한국에서 이들은 온전한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다수자들에 비해 ‘무언가 부족한’ 사람으로 객체화되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지닌 ‘차이’가 생산

의 힘이 아닌 '결핍'으로 취급되었다. 결핍의 기억들은 당연시되는 세계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이다.

1) 연구참여자 A: 주변인으로의 전략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연구참여자 A는 대학 재학 중 남편을 만났고, 연애한 지 3개월 여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학교를 중퇴하면서까지 남편과의 결혼을 강행했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으로 먼저 이주해 온 친구들이 한국 생활에서의 결혼생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예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여러 절차들을 생략하고 한국으로 왔다.

> 학생인데. 왜 결혼하고 한국에 가냐 미쳤냐고(웃음) 저도 처음.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냥 아…,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웃음). 결혼하고 그래서 물론 친구도 저는 아는 친구도 결혼하니까 그 친구는 그 친구지만 언니죠. 그냥 결혼도 하고 여기 와서 한국… 괜찮다고 조금 믿고 여기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반대했어요. 할머니도. 친척분 다. 아니 이렇게는 공부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결혼하는 거는 생각도 못한 거죠. 부모님이 많이 서운해했기 때문에 얘기를 제대로 못 했어요.

연구참여자를 한국으로 이끈 것은 아마도 한국 삶에 대한 기대감과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였을 것이다. 연구참여자 A는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것도 새로운 사람과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서 한국행을 선택했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자유롭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주변인으로서 고립된 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활이 지속되었다.

>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신랑도 출근해야 하니까 옆에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뭐 가족의 시댁도 있는데 그런데 말을 통하지 않으니까. 병원 가거나 아니면 은행.

우체국하는 거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하나 다 적고 만약에 먼저 뭐. (남편에게) 가기로 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은행가거나 소포같은 거 보낸다 그러면 간단하는 거 적어 달라고 해요. 만약에 갑자기 아프면 신랑한테 꼭 전화하고. 와서 만나고. 다음에 그때는 치료받을 수 있죠.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연구참여자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통번역 서비스가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집안에 고립된 채 오로지 아이만 키워야 하는 상황에 대해 연구참여자는 억울한 감정을 느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동시에 고립된 공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다.

임신하고 아기 낳으면 아기 돌봐야 되는데. 왜 지금 나가야 하냐고. 저는 억울한 거예요. 나도 활동해야 되고 젊은 나이에 많이 경험을 쌓아야 나중에 모든 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물론 아기도 봐야 되는데, 도전하고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지금은 괜찮다고. 그래도 아기도 크고.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적응의 어려움은 대개 언어적 어려움이나 자녀양육의 어려움, 한국 문화의 낯섦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수동적인 수혜자"(최연숙, 2021, 9)로 가정한다. 입국 초기, 고립된 생활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던 연구참여자 또한 혹시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자녀가 차별받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의 어려움을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참여자는 자유롭게 상호연결되고 변이와 생성을 거듭하는 매끄러운 공간[5]에서 스스

5) 매끄러운 공간은 당연시되는 세계의 기준으로 번역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이 접촉함으로써 '되기'를 실현하는 곳이다(이진경, 2018b, 293-467).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 번역하고 해석함으로써 차이를 결핍으로 만드는 공간과 대비되는 곳으로써, 다양성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매끄러운 공간이라 정의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또한 유목적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

로의 삶의 행위자로 나아가지 못하고, 홈 패인 공간[6]에서 주변인으로 전락해 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억울함과 우울감을 경험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의 어려움을 극복함에 있어서 '한국 어머니'로서 자녀양육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사회의 모성적 이미지의 홈 패인 공간으로 고립시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삶의 행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성적 이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연구참여자 B: 결혼 진정성에 대한 의심

중국 한족 출신인 연구참여자 B는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로 결혼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당시로서는 결혼하기에 다소 늦은 나이(26살)인 자신에게 자상하게 대해주고 아껴주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다.

> 이거는 우리 엄마의 친구, 우리 엄마의 여자 친구는 여기서 남편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 남편분은 우리 남편의 친구예요. 그래서 소개해 주셔서. 그래서 왜냐면 좀 거리 좀 멀으니까 혹시 괜찮나? 우리 온라인에서. 많이 만나면 우리 남편 옛날에 중국 출장 조금 했어요. 중국어 조금 말하니까, 많이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영어로 통화했어요. 영어로~ 뭐 왜냐하면 제가 중국말 하면 이분도 잘 못 알아들어. 또 한국말 하면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영어로 조금 하는데, 제 대학교 전공 영어예요.

남편은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모

들이 생성한 매끄러운 공간이다.

6) 홈 패인 공간은 동일성에 입각한 기준을 토대로 모든 것을 번역하며 환원되는 공간이다(이진경, 2018b, 293-467). 매끄러운 공간과 홈 패인 공간은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구성되는 공간이며,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채로 존재한다(김은주, 2016, 24).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차이의 생성을 하고 있느냐일 뿐이다.

습을 보면서 이 정도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다. 친정 부모님도 연구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해주었다. 한국에서의 신혼생활은 중국에서 살던 집에 비해 많이 작았지만,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충분히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남편 누이들의 무례한 행동이었다.

>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말 잘 모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큰 시누이가 '아 이렇게 젊은 여자 결혼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혹시 마음이 불편해서 금방 도망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결혼했는데, 왜 도망칠거라고 생각하죠? 그거 생각 문제지 않아요?

시누이들은 남편보다 14살이나 어린 연구참여자의 결혼 의도를 의심했다.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중국에 비해 부족한 환경도 받아들인 것이지만, 금방이라도 연구참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명절이나 제사가 되면 시누이들은 연구참여자와는 상의도 없이 남편의 카드를 가져가 함부로 장을 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모조리 가져갔다. 연구참여자를 가족의 일원으로 수용하지 않고, 도리어 결혼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믿을 수 없는 "불확실한 주체"(김순남, 2014, 191)로 취급하였다. 대체로 한족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에 대해 국가의 인식은 '진짜 결혼'이 아니라 '가짜 결혼'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문경연, 2011, 100). 시누이들의 무례한 태도에는 이러한 인식이 내재되어, 연구참여자에게로 표출되었다.

>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남편 때문에 결혼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남편 식구들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아팠죠. 이렇게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싸우는 거 형제 때문에 싸우는 거야 형제 때문에.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여성으로 규율화하는 권력규범”(김순남, 2014, 223)으로서의 시누이들의 태도는 연구참여자를 끊임없이 고립시켰고, 이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시누이들이 만들어내는 불확실한 주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어를 진짜 열심히” 배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시누이들에게 확실하고 친밀한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행동으로 단정될 수 없다. 오히려 “중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3) 연구참여자 C: 외국인 엄마의 한계

베트남 출신인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던 친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베트남에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연구참여자는 남편과 영상통화로 1년 정도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친언니가 중간에서 통역을 자처해서 서로의 언어는 몰랐지만, 소통을 할 수 있었다. 한국에 오자마자 남편의 도움으로 바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 문제는 한국 사람은 아직 외국 사람에 대한 그 뭐라고 하지 시선이라든지 좋지 않은 그 시선을?(연구자: 부정적인 인식) 네. 영어를 말하면 오~괜찮은데 그건 높게 보는데… 근데 아시아 여자들이 오면은 필리핀, 베트남 아니면 중국 보면 한국 사람들은 못 사는 나라에서 왔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한국은 친언니가 말한 것처럼 좋은 나라였지만,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을 느꼈다. 연구참여자는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극복하고 한국인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또한 언어를 배우려면 한국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2년 정도 합창 자조모임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를 알아가면 갈수록, 뿌리 깊은 차별을 마주했다.

근데 문제는 엄마 아빠들 지금 아이들은 괜찮은데 근데 엄마 아빠는 보통은 외국 자녀 다문화 가정을 볼 때는, 너 엄마 한국 외국인이랑 같이 놀지 말라고 그런 경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가 럴 그런 거를 보니까 우리 아이가 더 많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살 때부터 계속 선생님 불러와서 공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거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차별적 시선이 자신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정신으로 견디기 괴로운 일이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모르는 외국인 엄마가 한국인 자녀를 키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이은아, 2012, 2). 이러한 인식 속에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자녀가 일반적인 한국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게 자라기를 희망했다. 이는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당연시되는 세계의 정형화된 틀 속에 스스로를 매몰시키고, 생성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2. 생성의 선을 그리다

유목적 주체로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을 '결핍의 주체'로 맥락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고립이 아니라 무언가와의 연결과 접속을 선택한다. 이러한 접속을 통해 생성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자조모임은 연구참여자들 각자의 생성의 힘이 만나는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그려나가는 생성의 선은 모두 동일하지 않다. 자조모임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생성의 선들은 다시 접속과 연결을 통해 변이하고, 사회적 환경에 자신들의 욕망을 투여시킨다.

1) 연구참여자 A: 경험을 나누다

연구참여자는 한국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국적도 취득할 목적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

로그램에 등록하여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2016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모두 수료하고, 2017년 A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통번역 자조모임 활동을 시작하였다. 리더로 나서길 모두 주저했지만, 연구참여자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 처음에는 (리더) 누가 하실건지 물어봤는데 다들 조용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하고 손을 안 들었어요. 마지막에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워낙에 말 많은 사람인데 여기 와서 내성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전의 모습처럼 돌아가고 싶은데. 도전하고 그렇게 (리더가) 된 거예요.

자조모임은 또 한 번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도약대가 되었다. 이러한 도전이 연구참여자가 고립되었던 공간에서 매끄러운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물론 리더로 활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조모임 구성원들과 A 가족센터를 중간에서 조율해야 하는 역할은 너무 힘들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A 가족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 좋은 점은 많이 배웠어요. 작성하는 거 이거는 배웠고…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전달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또 배웠고 의견 같은 거 각자 의견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하나만 정하는 것도 배웠어요. 다 기분 좋게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연구참여자는 자조모임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적 지식(experiential knowledge)'을 터득했다. 경험적 지식은 자조모임 안에서 공통의 문제를 공유하고 상호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식으로(Borkman, 1976, 446), 자조모임의 자발적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구참여자는 자조모임을 참여하면서 통번역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혹시 이런 정보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무료 통번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수익이 나는 활동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긍정적인 말 같은 것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이러한 생성의 '점'들이 '선'이 되어가는 과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좋은 거 많이 얻었어요. 그 처음에는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나 활동할 수 했는지 꿈도 못 하는 거죠. 말도 못 하는데 말할 때도 지금 물론 마찬가지로 말할 때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는 간단하는 모아서 얘기도 하고 정보들도 얻을 수이고 만약에 혼자이면은 정보 같은 거는 못 찾잖아요. 물론 나중에 찾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걸리니까 사회성도 많이 키우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 앞에는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 방법들을 좀 많이 배웠어요.

2) 연구참여자 B: 다가가고 드러내다

다문화센터를 찾아다니면서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누군가와 교류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연구참여자는 "처음 왔을 때 친구가 없고, 친척도 없고 혼자"였다. 남편이 주말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 다른 모임을 참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A 가족센터에서 자조모임 참여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했지만, 선뜻 참여할 자신이 없었다. 한국어가 많이 서툴렀기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었기 때문이다.

> 센터 담당 선생님 이야기가 "아니요. 괜찮아요.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했더니 "여기 걱정하지 마요. 스트레스 받지 마요. 괜찮아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문제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들어와 봐요" 가니까 좋죠. 큰 문제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연구참여자는 막상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보니, 자신의 서툰 한국어도 이 안에서는 부족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아무도 연구참여자를 불확실한 주체로 바라보지 않았으며, 정형화된 틀로 규정짓지 않았다. 자조모임을 통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이은아, 2012, 195), 시누이들의 무례한 태도와 인식들은 자조모임 안에서 해체되고 무력화되었다. 또한 이곳에서 한국어는 한국 사회 적응의 지표가 아닌, 서로를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이주여성들이 더 잘 연대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 김선숙 외(2020)는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한국어 능력이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네트워크가 지닌 생성의 힘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가 조금은 서툴지라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동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만남 안에서 심리적 위안을 얻으며, 교류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얻는다.

> 여러 나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어떻게 말해요. 무슨 말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계속 다른 분들이 다 친절하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 다 와이프 되어서 왔어. 다 와이프 되어서 여기 와 있으니까. '아 한국어 못해'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하) 언니 그냥 말하세요' 한국어 못하는 거 우리 모두 똑같아요.

자조모임은 서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이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문제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장소이다(임선우·윤황, 2017). 이 안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들은 나의 발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자조모임이라는 매끄러운 공간에서는 매끄러운 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한 윤리적 실천이 요구된다(김은주, 2018; 윤성우, 2006; 이진경, 2018a). 연구참여자는 A 가족센터 자조모임을 통해 연결되고 접촉함으로써 봉사활동과 같은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생성의 힘을 만들어나가면서 매끄러운 공간을 확대해나갔다.

결혼이민자(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결혼이민자들)들이 한국 말 못하잖아요. 그런 거 봉사활동 했어요. 그분들이 아기도 있고 하는데, 말 못하니까 어떨 때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 마트나 보건소나 이렇게. 아기 어떻게 하냐. 왜냐면 아기도 있어요. 도와주고….

솔직히 봉사활동 하는 거 돈 버는 것보다도 좋아. 돈 버는 거 물론 좋아하지만 자기의 노동에 의해서 돈 바꿨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자기 능력에서 다른 사람 도우는 일이라서. 그럼 진짜 행복한 마음 나와요.

매끄러운 공간에서의 윤리적 실천을 통해 회복한 자신감은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아이와는 주로 중국어만 사용했는데, 어린이집에서 놀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서툴러도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중 언어를 포기한다거나, 중국인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에게 중국 국적을 가진 엄마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도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우리 아들한테도 좋아. 엄마도 열심히 배우니까 나도 열심히 배워야지요. 그런데 중국어 공부하다가 어렵다고 해서 공부 끝났어. 한국어 책도 안 꺼내. (웃음)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해. 아들 나 누군지 알아요? 엄마. 엄마 당연하지 엄마지. 어느 나라 사람야? 중국 사람. 응 중국 사람이야. 그런데 난 니 엄마야 맞아? 안 맞아? 나도 여자야 중국 사람 니 엄마야.

3) 연구참여자 C: 참여하고 실천하다

아이가 다문화가정 아이지만 공부도 잘하고, 베트남어도 잘하고, 사회성도 뛰어난 아이가 되길 바랐다. 일반적인 한국 아이들보다도 더 뛰어나야 '다문화'라는 차별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언어습득 지연이나 학습 부진, 사회성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황지영, 2020, 136).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연구참여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아이'라는 기준점을 설정하고, 한국이라는 공간에서의 경쟁 구도 속에 자녀가 더 뛰어난 '한국 아이'가 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 생각한다(최승은, 2019, 87-88). 그러나 그것은 당연시되는 세계의 기준을 더욱 공고하게 할 뿐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결핍을 채우고자 노력했던 연구참여자의 시도는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 과거에도 자조모임 참여 경험이 있던 연구참여자는 악화된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자조모임에 다시 참여하게 된다.

> 보통 저희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회성은 약간 덜 발달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쨌든 엄마 외국인이라서 친구도 한국 친구도 거기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 가지고 친구 사귈 때는 왠지 맞는 친구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그거는 발달하잖아요. 내 친구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귀는지 그런 거를 부족하거든요. 근데 사회적 여기 뮤지컬 배우면 친구 사귀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를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 판단에서 거의 사귀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사귀는구나라고 자기가 느끼고 다음에 다른 새로운 친구 있으면 자기도 약간 멀리 보지 않고 다가와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 사귀는 거잖아요.

아이는 엄마와 공연했던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하는 등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자조모임 활동을 매우 즐거워했다. 자조모임 활동은 엄마와 아이를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이다. 덕분에 연구참여자는 "자녀에게 화도 덜 내게 되었고, 아이도 스트레스나 엄마 거부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줄었다"면서 자조모임 참여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다른 어머니들'의 존재는 연구참여자가 고립되지 않고 함께 어머니 노릇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이은아, 2012, 86). 뮤지컬 자조모임은 연구참여자를 결핍된 어머니가 아니라 생성하는 어머니로서 재배치시켰다. 한편 자녀에 대한 베트남어 교

육에 대한 열망으로 자녀를 직접 가르쳐 보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 저희 아이한테 베트남어 너무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칠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화가 나서 안 되니까 선생님은 불러요. 제가 사비로. 근데 그거 너무 비싸가지고. 기본 1시간 수업인데 보통 아이가 집중 시간은 30분 안 되거든요.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와 모국어로 소통하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성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최승은, 2019, 89-90). 자녀와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직접 베트남어를 가르치기도 했지만 한계를 느꼈다. 2019년에는 베트남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베트남어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을 결성하였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서로가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 갈등을 겪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억양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는 너무 힘든 거를 많이 느꼈고. 저는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어머님은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열심히 활동 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A 가족센터에서 베트남어 책을 지원해주고 결혼이주여성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억양이나 전문성 측면, 준비도에 있어서 편차가 큰 편이었다. 현재 이 자조모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자발적 해결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A 가족센터는 이주여성들의 요청으로 자조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회원 모집이나 홍보 등에 있어서는 관여를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완전한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자조모임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조언이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이경준, 2006; Adamsen, & Rasmussen, 2001). 생성으로서의 자조모임은 결혼

이주여성들만의 생성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3. 넘나드는 공간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저마다의 생성의 선을 그림으로써 자조모임의 리더로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경험을 나누거나 고립된 공간에서 벗어나 자신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이주 어머니로서 사회적 맥락에서 정해둔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머니 역할을 수립해 나간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자조모임이라는 매끄러운 공간에서 일어나는 차이 생성의 과정이며, 윤리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감으로써 더 큰 공간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투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A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이 넘나드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본 절은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로 A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이 '정체성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룬다.

1) 연구참여자 A: 미래로의 공간으로

연구참여자는 A 가족센터 밖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조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모임으로 "형제처럼 친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모임이다. 그 모임이 친밀함으로 가득한 공간이라면, A 가족센터 자조모임은 발전 욕구적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임선우와 윤황(2017)의 연구에서도 통번역 자조모임은 사회활동을 목표로 하며, 전문성 욕구를 충족해나가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또한 통번역 자조모임에 참여함에 있어 이러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었고, A 가족센터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일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성과 말고 좀 아무리 적어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질보다는 양. 질 같은 것도 좋지 않고.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조 모임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있던 거를 먼저 집중하고 키우고.

왜냐면 저희 아무래도 외국인이라서 사회에 솔직히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은 나가서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또 없는 상태라서 그런 거는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가서 활동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우리도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센터)에서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고.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A 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 참여 목적에 대한 고려보다는 실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이주여성들이 A 가족센터 자조모임을 통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어주길 원하고 있다.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놓친” 경험들이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재발되지 않도록 A 가족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생성의 선을 그려나갈 수 있는 하나의 ‘점’이 되길 희망하는 것이다.

각자 각각 개인마다 의견도 들어주시고 그런 자조 모임이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고 미래에 대한 거는 우리는 참여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자기한테 도움 도움이 있는 자조 모임이 참여해야 미래에 대한 좋은 모습 있잖아요.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는 자조모임의 리더로서 A 가족센터 측에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조모임의 구성원이자 A 가족센터의 이용자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A 가족센터는 일자리나 여러 교육 등을 제안받고,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연결을 도와주는 곳으로, 위계적 관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서정원·민윤경, 2021). 그렇기 때문에 리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견을 좀 내라"고 하지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동시에 자조모임 구성원들이 A 가족센터에서 모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거의 마련되지 않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리더라는 우월적 위치를 이용하여 "여러 이유나 여러 의견"을 무시한 채 연구참여자 개인의 생각일지도 모르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다.

> (연구자: 어떤 여자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살고 싶으신가요?) 최선은 되는 엄마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일단은 경제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제 자식은 이렇게 편하게 공부를 학습 같은 것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일단 매력적인 여자. 수십 명의 앞에서 말도 편하고 할 수 있고. 계속 이끌어줄 수 있는 여자도 되고 싶고. 지식 있는 여자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로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A 가족센터와 이주여성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매력적인 사람"은 호네트(Honneth, 1996)가 말하는 인정투쟁처럼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한 "매력적인"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조금씩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가고자 하는 것이다(김영옥, 2010).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차이를 결핍이 아닌 생성의 힘으로 다루고, 매끄러운 공간에서의 윤리적 실천을 통해 타자-되기로 나아가고 있다.

2) 연구참여자 B: 열린 공간으로

연구참여자는 자조모임을 계기로 다양한 출신 배경을 지닌 결혼이주여성들과 만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생활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갔다. 뿐

만 아니라 차별적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리 및 정서적인 위안을 얻기도 한다. 동시에 자조모임은 결혼이주여성들을 공동체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 다섯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임은 나라 관리 자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연구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 명이서. 혹시 무슨 봉사같은 거 사람 필요했을 때 공지 받으면 이 모임 하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다같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는 자조모임에서의 상호연결을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누군가를 돕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자조모임 차원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의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서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된다. “어떤 나라이든 상관없이 마음을 열어도 되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먼저 누군가에게 “도와줄까요?”라고 다가가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원봉사는 “주체적 에이전시 부활의 장”(김은재, 2018, 65)이 된다. 연구참여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을 불합리한 주체로 규정지었던 사회적 시선에 문제를 제기한다.

> 우리도 똑같아. 그런데 항상 틀려요. 항상 틀리다고 해요. 솔직히 뭐 다문화아이 뭐 문제에요? 다문화 아이도 반 한국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한국 사람은 섞였잖아요. 왜 이렇게 틀리게 보는 거지요. 말로만 똑같아 똑같아 라고 해요. (그런데) 왜 틀리다고 해요? 틀린 거 없어요.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계속 눈치를 줘.

연구참여자는 자조모임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서적인 지지 기반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생성의 힘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말로만” 동등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동등한 주체적 행위자로 나아갔다. 이제는 이러한 것

들이 자조모임에서도 실현되길 꿈꾼다. 결혼이주여성만 참여하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조모임이 '지금-여기'에서 실현되길 희망한다.

> 외국인이 하고 한국인이 같이 섞일 수 있는 모임 제일 좋아해요. 한국 사람하고 여러 나라 외국 사람은 같이 있어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어요.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거. 그리고 다문화니까 체험도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 있으니까 저희는 한국어 배울 수 있고, 같이 활동하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중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 황해영(2018)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사회가 부여하는 책임과 의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합법적인 자기존중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서툰 한국어 발음과 조금은 다른 생김새조차 그들의 생활세계 안에서는 '한국인'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한국 사회가 부여하는 책임과 의무, 권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이 아닌,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한국인'이라는 기준을 확장시키고 있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타인의 인정(Mead, 1963, 194)이 자조모임 안에서의 결연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자조모임에서 형성된 생성의 힘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고, 결핍이 아닌 차이를 생성할 수 있는 사회로 확장되기를 원한다.

> 저는 중국 국적이지만 한국 사람 비슷하게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2 고향이니까. 여기에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도 잘 알고 싶고, 중국인이라는 거 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한국 아이 엄마니까요.

3) 연구참여자 C: 소통하는 공간으로

연구참여자는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가르치는 베트남어 교육 자조모임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을 양성해서 아이에게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양성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당장은 A 가족센터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의 모국어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연구참여자는 수업 개설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A 가족센터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 ‘베트남어 수업이 있는데 혹시 몇 명 참여할 수 있어?’ 라고 조사해봤거든요. 그때는 대답해준 사람은 약 거의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거 다 베트남어 원해서 근데 문제는 원하는데 여기 센터는 허락 안 해 주시는 거잖아요. 돈도 없고 그리고 교실도 없으니까 자꾸 모집해도 이런 거를 우리는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아예 못 하게 되고 있어요.

또한 연구참여자는 A 가족센터에 가입된 인원이 천여 명이 넘어가는데, 막상 자조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도 참여하는 사람이 그에 비해 많지 않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A 가족센터의 “홍보가 부족”한 탓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소외시키는 시스템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관련 지원기관은 결혼이주여성에게 기대되는 ‘특정한 이미지’를 규정하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소외된다(권인욱·이병권·김수영, 2020, 48). A 가족센터가 평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벌이 다문화가정에서 높은 진입장벽이 된다.

> 주말에는 보통은 외국인 센터들을 다 주말에 선택하거든요. 근데 저희 센터에는

주말에 안 되잖아요. 인력 없어서 인력 없으니까 주말에 진행할 수 없고 그래 가지고 또 여기는 장소도 교실은 없어요. G구는 많이 생각하셔야 되요. 연구할 때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지원해주고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런 거를 거의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상 A 가족센터 자조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러한 이주여성들이 A 가족센터를 모르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보통 온라인을 통해 홍보가 진행되지만, 한국어로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툰 초기 이주자들은 A 가족센터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 권인욱 외(2020)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누군가 소개해주지 않거나 한국인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참여하기란 어려운 구조이다.

지금은 우리 센터는 SNS는 500명 넘게 있어요. 근데 왜 7년 동안 살았는데 이 센터를 알지 못하고 6개월 전에 와서 저희 이 센터는 모르는 센터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채널이 있었는지 몰라가지고 이제는 알았다고 이야기 많이 해요.

자조모임은 분명 결혼이주여성들이 장기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모이는 공간이다. A 가족센터는 이러한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예산 차원에서만 사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명 한 명 자조 모임 원하는 것을 취합해서 어떤 의견이 많은지” 확인하고, 고립된 공간에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A 가족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A 가족센터는 차이를 생성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의 홈 패인 곳까지 투영되어 매끄러운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통과 흐름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4. 경험에 대한 종합적 의미: 차이의 생성을 통한 타자-되기로

연구참여자들은 저마다의 결핍의 기억들을 가지고 자조모임에 참여하였다. 결핍의 기억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무엇이 자신에게 없다고 느끼는 것이며, 유무의 차이에 대한 기억이다. 결핍의 기억들 중심에는 '고립'이 자리잡고 있다. 모국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진 생성의 삶으로부터의 고립(연구참여자 A), 한국 사회의 권력 규범으로 인한 고립(연구참여자 B), 당연시되는 한국 사회의 규범으로의 고립(연구참여자 C)이다. 다시 말해 연구참여자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과 그것이 생성하는 힘은 철저하게 홈 패인 공간 안에 머물고,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동일한' 결혼이주여성으로서, 규정된 삶을 강요받는다. 김정선(2009, 176)과 김영순 외(2014, 65-68)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지배적인 힘에 대항하고자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초국적 실천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달리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고립'이 정말로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던지면서 '지금-여기'에서 홈 패인 공간에서 매끄러운 공간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A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자조모임의 참여는 이들이 매끄러운 공간으로 나아가, 생성의 선을 그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들은 자조모임 안에서 저마다의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고, 자조모임의 자발적 역량을 발휘하며, 생성의 선은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타자성을 실현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나아간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실천하는 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며, 이는 정치적 실천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다(윤성우, 2006, 132). 이러한 맥락에서 A 가족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윤리적 실천의 장으로 작동되지만, A 가족센터는 자조모임을 기획하고 만들기만 할 뿐, 실질적인 운영의 과정에서 자조모임 참여자들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 생성은 끊임없는 외부와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남으로서 경험적 지식을 나누며, 생성의 선을 그려나가는 매끄러운 공간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윤리적 실천이 '지금-여기'의 생활세계에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A 가족센터와의 상호의존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가족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조모임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차이의 생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A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조모임은 대표적인 다문화가족 대상 사회통합 정책 사업 중 하나로, 다문화가족이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해소를 목적으로 한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64).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을 끊임없이 한국 사회가 규정해둔 어머니이자 아내, 며느리로 포섭시킨다. 가족센터는 한국 사회의 정책적 규범을 결혼이주여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신들의 결핍을 차이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센터의 자조모임은 이들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자조모임을 계기로 결핍으로서의 차이가 생성으로서의 차이로 재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술한 바와 같이, 생성의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센터와의 상호의존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가족센터는 정책의 전달자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천하는 허브가 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센터가 결혼이주여성들이 지닌 미래의 목적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 마련,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길 희망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정형화된 틀로 규정짓는 당연시되는 세계 속에서 매끄러운 공간을 생성해나가고 있다. 비록 이들의 자조모임이 가족센터와

의 관계를 맺어나감에 있어 한국 사회의 규범적 권력이라는 한계가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차이에 기반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김현미, 2008, 59). 연구참여자들은 동일성을 근거로 다수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조모임을 기반으로 소수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소수자-되기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이진경, 2018b, 23-210). 생성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은 다른 많은 소수자들과 연대함으로써 더 이상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자조모임의 욕망으로 진화한다. 다시 말해 주체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자로 자조모임과의 연결을 통해 언제나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용해나가면서(김은주, 2018), '경험을 나누고', '다가가고 드러내며', '참여하고 실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홈 패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을 넘나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 생활세계의 새로운 타자를 생성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타자는 주체가 지각하는 대상이나 주체를 지각하는 어떤 주체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선험적인 구조로서의 타자를 의미한다(김지영, 2004). 차이의 생성을 통해 타자-되기로 나아가는 것은, 생활세계에서 이들의 삶을 결핍으로 치부하는 한국 사회에 반론을 제기하고, 다양한 관계와의 연결을 시도함으로써, 다문화 생활세계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그려나가는 생성의 선은 그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연결 속에서 미래로의 공간이자 열린 공간이며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타자-되기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을 생성으로서 자조모임으로 정의하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의 의미를 해

석 현상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생활세계를 둘러싼 개인적·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미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경험의 패턴으로 '결핍의 기억들', '생성의 선을 그리다', '넘나드는 공간으로'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으로 이주 후, 주변인으로 전락하거나,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외국인 엄마로서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이들이 지닌 차이는 한국 사회에서 결핍으로만 다루어질 뿐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홈 패인 공간에서 고립된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 다른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연결과 교류의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생성의 선을 그려나갔다. 자조모임은 연구참여자가 지닌 생성의 선이 모이는 생성으로서의 공간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매끄러운 공간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함께 나눔으로써 윤리적 실천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센터는 윤리적 실천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조모임 참여자들과의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생성으로서의 자조모임이 넘나드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센터와의 상호의존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차이의 생성을 실현할 수 있는 허브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이 사회·경제적 참여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자립지원 패키지,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제고함은 물론, 자조모임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관점을 고려보다는 획일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송사리, 2017; 황민철, 2017). 자조모임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경험적 지식을 나눔으로써 사회·경제적 참여의 측면에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여주기식 정책의 방향성에서 벗어나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의 적극적인 행위자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자조모임이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립과 단절의 폐쇄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 맺음을 바탕으로 한 다변화된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연효숙, 2021). 현재 센터의 프로그램은 일을 하지 않는 이주여성들만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하는 이주여성들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권인욱 외, 2020). 자조모임은 시간을 자유롭게 구성원 간 결정할 수 있어서 일하는 이주여성의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으나,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기에는 충분치 않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센터 운영의 유동성, 유사한 주제의 자조모임 간 교류 등을 통해 자조모임이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다문화 관련 지원기관은 자조모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을 결핍의 존재로 취급하고, 이들을 행위자성이 없다고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비판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와 자조모임의 관계는 협력과 보완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이경준, 2006). 따라서 센터는 정책의 방향성만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조모임이 활성화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기반으로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공존은 동일성을 기준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차이를 사회 발전의 힘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김영순, 2017). 생성으로서의 자조모임은 다문화 사회의 공존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기에 자조모임의 긍정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래 자조모임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을 원칙으로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생적인 자조모임은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서만 그치고 있다(김성호, 2019; 김영순 외, 2019).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이 타자-되기로서, 진정한 자조모임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의 역할은 이들이 자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전권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밝혀 둔다.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에 관하여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인욱·이병권·김수영 (2020).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소외 경험”.『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2(2), 41-73.

김광기 (2001). “당연시되는 세계와 자기기만”.『현상학과 현대철학』18, 388-416.

김경옥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숙·고대영·김혜원·조요셉·최성은·민기채 (2020).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계층의식의 매개효과 검증”.『사회과학연구』31(3), 59-78.

김성호 (2019). “상호문화주의에 근거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경험 연구”.『생명연구』52(1), 57-84.

김순남 (2014). “이주여성들의 결혼, 이혼의 과정을 통해서 본 삶의 불확실성과 생애지도의 재구성”.『한국여성학』30(4), 189-231.

김영경 (2015). “한국사회 이주민의 생활세계 : 결혼이주여성의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민족연구』62(0), 4-26.

김영순 (2017).『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 경기: 디비북스.

김영순·임지혜·정경희·박봉수 (2014).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유대관계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의 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 이론』10(3), 36-96.

김영순·조영철·김정희·정지현·박봉수·오영훈 외 (2019).『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 경기: 북코리아.

김영옥 (2010). “인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한국여성철학』14, 31-64.

김영천 (2013).『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김은재 (2016). “결혼이주여성들의 삶과 글로벌 돌봄노동 맥락 - 정신장애인 배우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재 (2018).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현상

학적 연구”.『지역사회연구』26(4), 65-90.
김은주 (2014).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 개념과 여성주의적 의미”.『한국여성철학』21, 95-119.
김은주 (2016). “들뢰즈의 생성의 공간 -변이하는 공간과 공간 생산을 중심으로-”.『시대와 철학』27(2), 7-37.
김은주 (2018). “탈근대의 윤리적 주체화와 책임의 새로운 지평”.『한국여성철학』29, 59-86.
김이선 (2010).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다문화’정책의 성격: 문화의제를 중심으로”.『지역과 세계』34(1), 1-27.
김정선 (2009).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귀속(belonging)의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현미 (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현대사회와 문화』26, 57-79.
문경연 (2011).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결혼과 이혼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문화인류학』44(2), 71-112.
박경애·채옥희·정혜선·김대건 (2012).『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2-56). 서울: 여성가족부.
서정원·민윤경 (2021). “취업적응지원사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종사자의 역할학습에 대한 사례연구: 수도권 북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질적탐구』7(3), 491-529.
서태실·이윤정 (2017). “조선족 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을 통해서 본 초등학생 자녀 교육경험에 관한 연구”.『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7, 395-417.
송사리 (2017). “결혼이주여성의 주변부 노동순환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 (2018).『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_2022)』. 서울: 여성가족부.
연효숙 (2021). “들뢰즈에서 위상학적 사유와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시대와 철학』32(4), 37-76.

윤성우 (2006). “포스트구조주의의 욕망론 - 들뢰즈를 중심으로”.『프랑스학연구』 6(-), 125-146.

이광석 (2013). “해석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의 의의와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질적연구』 14(2), 132-144.

이경준 (2006). “한국과 독일의 장애인 자조모임 연구 -양국 참가자들의 지원욕구와 인식비교 및 독일의 자조모임 지원 동향”.『한국장애인복지학』 (4), 111-166.

이숙진·김안나 (2013).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다문화 지원기관의 상호작용”.『가족과 문화』 25(2), 234-269.

이은아 (2012).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경계적 위치와 모성의 확장적 구성/재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우 (2008).『천하나의 고원』. 경기: 돌베개.

이진경 (2018a).『노마디즘 1』. 서울: 휴머니스트.

이진경 (2018b).『노마디즘 2』. 서울: 휴머니스트.

이춘양·김수민·이현주 (2020). “여가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경험 탐색: ‘H’ 중국 전통무용팀을 중심으로”.『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1089-1113.

임선우 (2020). “대구광역시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문화와 융합』 42(9), 189-229.

임선우·윤황 (201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인문사회 21』 8(3), 639-660.

정성미 (2010).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도현·조대엽 (2008). “아토피안 자조 집단의 사회운동 조직적 성격”.『현상과인식』 32(4), 191-213.

지명훈 (2021). “들뢰즈의 되기와 생성적 주체의 철학”.『인문학연구』 123(-), 351-375.

차현미 (2003). “임파워먼트 관점에서의 중도지체장애인 가족보호제공자 자조집단 프로그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미경 (202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 연구”. 『생명연구』 61(1), 187-219.

최병두·김연희·이희영·이민경 (2017). 『번역과 동맹: 초국적 이주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사회공간적 전환』. 서울: 푸른길.

최승은 (2019).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의 자녀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1(2), 77-109.

최연숙 (2021).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경험”.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2021-KIHF-059). 서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황민철 (2017).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효과성 평가”. 『다문화와 평화』 11(2), 139-171.

황정미 (2009).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9(2), 1-37.

황지영 (2020).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동향 -결혼이주자 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3(-), 131-160.

황해영 (2018).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경험 탐구-인정투쟁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damsen, L., & Rasmussen, J. M. (2001).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elf help groups: Reflections on conceptualization and social proces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5*(6), 909-917.

Berger, P. L. (1971). Sociology and Freedom. *The American Sociologist*, *6*(1), 1-5.

Bignall, S. (2008). Deleuze and Foucault on Desire and Power. *Angelaki: Journal of Theoretical Humanities*, *13*(1), 127-147.

Braidotti, R. (1994). *Nomadic subjects: Embodiment and sexual difference in contemporary feminist theory*.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Cole, A. L., & Knowles, J. G. (2001). *Lives in context: The art of life history research*. Lanham, ML: Rowman Altamira.

Deleuze G., & Guattari, F. (1968). *Mille plateaux : Capitalisme et schizophrenie 2*. 김재인 역 (2001). 『천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Deleuze, G., & Guattari. F. (1983).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Gadamer, H. G. (1972). *Wahrheit und Methode*. 이길우·이선관·임호일 역 (2012). 『진리와 방법 1』. 경기: 문학동네.

Honneth, A. (1996).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Cambridge, MA: MIT press.

Khasnabis, C., Motsch, K. H., Achu, K., Al Jubah, K., Brodtkorb, S., Chervin, P., ... & Lander, T. (2010).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guidelines*.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King, R., & Christou, A. (2011). Of counter-diaspora and reverse transnationalism: Return mobilities to and from the ancestral homeland. *Mobilities*, *6*(4), 451-466.

Mead, G. H. (1963).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Shea, A. (2002). Desiring Desire How Desire Makes Us Human, All Too Human. *Sociology*, *36*(4), 925-940.

Smith, J., Flowers, P., & Larkin, M. (2009).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London, UK: Sage.

Smith, J. A., & Osborn, M. (2003).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n Smith, J. A. (Ed.) Qualitative psychology: A practical guide to methods. London, UK: Sage.

Toch, H. (2013). *The social psychology of social movements (Psychology revivals)*. London, UK: Routledge.

Wituk, S., Shepherd, M. D., Slavich, S., Warren, M. L., & Meissen, G. (2000). A topography of self-help groups: An empirical analysis. *Social work*, 45(2), 157-165.

Abstract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Marriage-Migrant Women Participating in Self-Help Groups as "Becoming"

Kim Youngsoon* · Choi Sooan**

This study defines self-help groups of marriage-migrant women as constituting self-help groups as Becoming. Using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s of marriage-migrant women who participated in a self-help group. For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ree marriage-migrant women who actively participate in self-help groups at the Family Center in Inche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PA method suggested by Smith et al. (2009). Three themes, "memories of lack," "drawing line of becoming," and "to the crossing space," were identified as the patterns of experiences. The meaning of participation in self-help groups manifested as "becoming other through the generativity of differences." The study participants' past memories were transformed into lines that made a difference while forming interconnections through self-help groups. The self-help group in which they participated established ethical practices for people who have memories of lack, and the process of making a difference was repeated, creating knowledge and attitudes necessary in a multicultural world.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scussion on self-help groups for marriage-migrant women in terms of soci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should be expanded. Second, self-help groups should strive to become an open space that embraces diversity. Third,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should take actively discover and suggest policies related to self-help groups.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Key words: marriage-migrant women, self-help groups, becoming, Deleuze and Guattari,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논문 투고: 2022년 03월 16일
심사 완료: 2022년 04월 17일
게재 승인: 2022년 04월 19일